

“경제, 올 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할 것”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주요 내용

“양극화 해소 최선”...민생 챙기기

지역균형 뉴딜 다시 한번 강조

전직 대통령 사면은 언급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신축년 새해 국정운영 비전으로 ‘회복·도약·포용’을 제시했다. 코로나 19 방역과 민생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집권 5년차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방역과 경제 회복=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는 현재까지 방역과 경제 양쪽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다는 점을 보여줬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고용보험 확대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을 모색, 회복·도약·포용의 한 해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부동산 문제 사과=이날 신년사에서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심상 첫 사과를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한 점이나,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

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날 발언은 주거불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 악화를 의식한 발언인 동시에 향후 주택정책의 미세 조정을 예고하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급확대에서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 이제까지의 수요억제 중심 정책과는 다른 처방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남북관계와 관련한 발언은 과거 신년사에 비해 한층 신중해진 모습이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남북관계 역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중전선언 역시 이날 신년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북미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마지막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협력 분야로 가장 앞세운 것은 코로나 사태를 매개로 한 방역·보건 협력이다. 이를 통해 당장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것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건협력 대화에도 자연스럽게 편입되며 관계개선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역균형발전=지역 균형 중심의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사람과 상상”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 추진 구상도 밝혀 광주시, 전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이슈 자제=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민감한 정치분야 이슈에 대한 발언을 예년보다 크게 줄였다.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원론적으로만 언급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는 연설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민생 경제 이슈에 집중하기 위해 진영대결로 번질 우려가 있는

정치사안에는 최대한 말을 아끼겠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이런 ‘침묵’의 배경이 됐으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 화두로 ‘통합’을 제시했으나 이를 놓고 ‘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이 이어지자, 신년사에서 ‘통합’ 대신 ‘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두 전직 대통령 사면
“통합 기여 못해” 56.1%
“기여할 것” 38.8%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효과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로 집계됐다.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8.8%였고, “잘 모르겠다”는 5.1%였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17.7% vs 81.4%)에서는 부정 응답이 압도적이지만 중도층(46.9% vs 49.2%)과 보수층(48.1% vs 50.1%)에서는 팽팽했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1.7%)과 무당층(59.4%)에서 부정 응답이 많았고, 국민의힘 지지층(64.1%)에선 긍정 응답이 많았다. 연령대는 높을수록 긍정 응답이 많았다. 20~50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과반, 60대와 70세 이상에선 긍정 응답이 과반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연합뉴스

‘경제’ 29번 언급...“민생경제 회복에 역량 총동원”

신년사 핵심 키워드

‘공정’ ‘평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핵심 키워드는 ‘경제’로 요약된다. 코로나19로 장기화한 경제 침체에서 반등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선도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 ‘국민’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총 29번이 나왔다. ‘코로나’는 16번 언급됐다. ‘경제’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17번)한 단어였다. ‘경제’가 작년보다 12번이나 더 언급된 점은 문 대통령이 올해 국정 분야 중 경제에 얼마나 큰 비중을 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민생 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11번씩 언급된 ‘위기’와 ‘뉴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를 뒷받침하는

데 쓰였다.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예년에 비중에 높았던 이슈들의 언급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14차례 등장했던 ‘공정’은 올해는 5번 언급되는 데 그쳤다.

‘평화’도 지난해보다 7번이나 줄어든 6차례만 등장했다. 2년 전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반전을 모색했으나 지난해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진전이 없었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비핵화’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일단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진전에 더욱 공을 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면서 북한에 다시금 전향적 태도로 대화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는 배석자 없이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27분간 진행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적극 뒷받침” 국민의힘 “귀담은 동문서답”

신년사 여야 반응

문재인 대통령의 11일 신년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 기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반겼지만 국민의힘은 “동문서답이다”며 혹평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2021년은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며 “민주당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길에 ‘지역균형 뉴딜’을 중심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도약할 것”이라며 “10대 입법과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050 탄소중립”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그린뉴딜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린 뉴딜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특별법 등으로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의 저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덕분’이라고 한 것에 맞춰 “모두를 위한 희생과 상생

을 위한 전진을 보여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충실히 귀 기울여달라”며 “K방역 신화에 대한 맹신, 북한에 대한 짝사랑도 이제는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세상과 민심, 정세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견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한 것을 두고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문서답”이라며 “백신의 발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기교가 넘치고 내용은 현란하나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 일색”이라며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도약’이란 제목에 대해 “좋은 말 대잔치 신년사”라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정호진 수석대변인이 낸 논평에서 “노동 운동 대한민국을 전방한 대통령의 초심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별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증식성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